親盧 14명…DJ인사 보다 3명 많아

■ 광주 전남 경선·단수후보자 35명 분석

평균 연령 53.19세 … 20·30·70대는 없어

단체장 출신 3명 페널티 받고도 경선 진출

민주통합당이 지난 5일까지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18개(광주 동구 제외) 지역구 경선 후보자와 단수후보자 35명의 연령·출신 성분·성별 등을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열린우리당계) 및 DJ정부출신(구 민주계) 인사들이 대거 공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젊어지고 현역 의원들이 대폭 물갈이된 점도 이번 공천의 특징이다.

◇**참여정부 인사 대거 공천**=이번 공천에서는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이 대거 공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정부 출신 인사 14명이 공천을 받은 반면, DJ정부 출신 인사는 11명으로 드러났다.

양 정부에서 관료를 지낸 장하진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포함한 서삼석 전 무안군수 등 언론인·공무원 등 기타 인사는 10명으로 조사됐다.

참여정부 출신 중에는 장병완·강기정 의원을 포함한 이형석·서대석·박선원 후보 등이 공천을 받았고, 구 민주계로는 박지원·이낙연 의원을 비롯한 최경환·최경주·김승남·김명진 후보 등이 이름을 올렸다.

◇**평균 연령 53.19세**=연령대별로는 50대 후보들이 주를 이뤘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7명, 60대 5명 등의 순이었다. 30대와 70대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고령자는 박지원 의원(69세)이었으며, 최연소는 이상갑 후보(44세)로 파악됐다. 전체 공천자의 평균 나이는 53.91세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32명, 여성이 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참여비율은 8.57%.

◇**현역 의원 11명 공천**=17개 지역구(광주 동구·순천 제외) 중 현역 의원이 공천을 받은 지역구는 모두 11개 지역구였다. 이중 단수 후보는 4명, 경선 후보는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수 후보로는 이용섭(광산 을)·박지원(목포)·우윤근(광양·구례)·주승용(여수 을) 의원 등 4명이다. 경선 후보에는 강기정(북구 갑)·장병완(남구)·김동철(광산 갑)·김성곤(여수 갑)·김영록(해남·완도·진도)·이윤석(무안·신안)·이낙연(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 등 7명이다.

◇**단체장 출신 약진**=민주당의 현역 단체장 사퇴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역단체장 출신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노관규 전 순천시장을 포함한 서삼석 전 무안군수, 황주홍 전 강진군수 등 이번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사퇴한 전남지역 단체장 출신 3명이 모두 공천을 받았다. 민주당은 이번 공천심사 과정에서 중도사퇴 단체장 출신 예비후보에 대해 페널티를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손잡은 야권연대 교착상태에 빠진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간의 야권연대 협상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6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난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8일 협상을 타결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정체성 논란' 김진표 공천 확정

민주통합당 '5차 심사' 13명 추가 선정

서울 강서 을 김효석 등 3자 경선 펼쳐

민주통합당은 6일 정체성 논란을 겪었던 김진표 원내대표(수원정)를 공천키로 하는 등 13명의 공천자를 추가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5차 공천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서울 중랑갑에서는 서영교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이상수 전 의원을 누르고 공천장을 거머쥐었고 최재천(성동갑) 신계륜(성북을) 전 의원도 공천 관문을 통과했다.

김효석 의원이 진출한 강서 을은 곽태원 한국노동경제연구원장, 오훈 강서구청 고문변호사 간의 3자 경선이 펼쳐진다.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최규식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북 을에서는 박용진 전 진보신당 부대표와 유대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장이 경선을 하게 됐다.

서울 서초 갑·을은 이혁진 에스크베리타스 자산운용 대표와 임지아 변호사가 각각 전략 공천을 받았다.

경기에서는 문학진(하남) 의원, 백재현(광명갑) 전 광명시장, 김병욱(분당을) 지역위원장의 공천이 확정됐다.

경기 성남 수정에서는 김태년 전 의원과 정기남 성남시민사회포럼 공동대표, 수원갑에서는 이찬열 의원과 이재영 국가균형발전위 자문위원이 각각 경선을 치르게 됐다.

부산에서는 김비오(영도) 부산시당 대변인과 송관종(해운대·기장갑) 지역위원장의 본선행이 확정됐고, 울산에서는 현대차 노조위원장 출신인 이상범 전 북구청장이 총선 후보로 결정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명숙·이정희 대표 "야권연대 내일 타결"

광주 서 을·순천 '촉각'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는 오는 8일 야권 연대 협상을 타결키로 합의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광주 서 을이 야권연대 대상 지역구로 부상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양당 대표는 국회에서 야권 연대 논의를 위한 대표 회담을 끝낸 뒤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8일 양당 대표회담을 거쳐 최종합의문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당은 지난달 24일 이후 중단된 양당 실무대표 간 협상을 즉시 재개하고, 19대 국회에서 입법 추진 과제로 삼을 정책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양당은 진보신당에도 야권연대 논의에 참여할 것을 제의했으며 정책협의와 정치협상을 병행해 전국적인 야권연대를 추진하면서 각 당 지도부가 전권을 갖고 협상에 임하기로 했다.

현재 야권연대 논의 대상 지역은 크게 서울과 수도권, 호남, 울산 등이다.

서울에서는 노원병(노회찬 대변인), 은평을(천호선 대변인), 관악을(이정희 공동대표)가, 경기에서는 고양·덕양 갑(심상정 공동대표) 등에 대해 민주당은 양보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은 경기 성남중원, 경기 수원 갑(장안) 등도 자신들이 야권 단일후보를 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은 통합진보당에서 최소한 두 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무공천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에서는 무공천은 있을 수 없으며 경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상 지역으로는 광주 서 을과 순천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광주·전남에서 1석, 전북에서 1석이 야권연대 지역으로 선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종두

이걸 보고도 그런소리가 나오슈?!

"민주 광주동구 '혼탁선거' 사죄합니다"

정영재 출마 포기 '3보 1배'

"금권·관권·동원 선거, 정말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람까지 죽었는데, 수권정당인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과연 이렇게까지 선거를 치러야 하는지 부끄러웠습니다."

4·11 총선에 나섰던 한 정치 신인이 '혼탁선거'를 참회하며 예비후보를 사퇴한 뒤 선거판을 떠나며 남긴 말이다.

민주통합당 광주 동구 정영재 예비후보는 6일 제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또 지역민에게 불법·혼탁선거를 사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선거사무실이 있는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에서 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 '투신 자살' 사건이 발생한 동구 계림 1동 주민자치센터까지 '3보1배'를 한 뒤 선거판을 홀연히 떠났다.

그는 이날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투신 자살'사건까지 발생했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냉정한 '정치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했는데도 수권정당인 민주당은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특히 아무런 책임과 대안없이 '무공천'을 결정하는 행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법 선거인단 모집과는 무관하지만,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로서 지역민들에게 부끄럽기 짝이 없고 유가족에게 죄송해 이번 총선 출마는 의미가 없다"며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정 예비후보는 "그동안 저를 믿고 평가해 주셨던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 광주 동구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정권교체를 이루는 데 백의종군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최권일기자 cki@